손수연 오페라평론가 / (사)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홍보이사

비제 오페라 '카르멘'

- 사랑은 길들이지 않은 한 마리 새

사랑에는 여러 가지 빛깔이 있다. 그 사랑의 종류에 따라 따뜻한 오렌지빛이 되기도 하고 풋풋한 연분홍색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제부터 얘기할 프랑스 오페라 '카르멘(Carmen)'의 주인공 카르멘에게 있어 사랑의 빛깔이란 절대적으로 붉은빛이다. 그것도 아주 강렬한 느낌이 드는 선명한 빨간색이다.

오페라 '카르멘'은 프랑스의 작곡가 G.비제(1838~1875)가 작곡해 1875년 파리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였던 비제는 천재성을 어릴 때부터 인정받으며 일찍이 주목받는 작곡가 생활을 시작했다.

드라마틱한 극의 구성과 음악 모두 높은 완성도를 가진 이 오페라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자주 공연되는 오페라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사랑받는 레퍼토리지만 막상 초연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고 전해진다.

먼저 여주인공 카르멘이 당시에는 멸시의 대상인 집시인 데다 최하층민인 담배공장의 여공으로 설정된 것이 문제였다. 고결한 신분이거나 지고지순한 오페라의 여주인공이 슬프게 눈물 흘리는 모습에 익숙했던 관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었는데 주위의 시선에는 아랑곳없이 본능적인 감정에만 충실한 거칠고 야성적인 카르멘의 모습은 당시에는 보기 어려운 여성상이었다.

게다가 성실한 부사관인 돈 호세를 뇌쇄적인 매력으로 유혹해 탈영병에다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서 금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린다. 그녀가 부르는 아리아 '하바네라(Habanera)'의 가사처럼 '사랑은 길들이지 않은 자유로운 새이고 잡았다고 생각해도 날갯짓하며 날아가 버리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카르멘의 사랑의 덫에 걸려든 돈 호세는 군인 신분과 착하고 청순한 약혼녀까지 버리고 운명을 뒤흔든 사랑에 빠져들지만 냉담하게 돌변한 그녀의 모습에 격분해 연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자신도 파멸하고 만다.

비제는 당시 유행이었던 이국 정서를 자신의 오페라에 반영하기를 좋아했다. '카르멘'도 일반적인 유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스페인의 남쪽 끝을 배경으로 삼아 안달루시아의 작렬하는 태양과 뜨거운 공기가 작품 전반을 지배하도록 했다. 여기에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에서 전해온 리듬과 춤까지 차용함으로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이국적 정취가 넘치는 오페라를 만들었다. '하바네라'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이름에서 비롯된 2박자 계열의 무곡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작품을 열정적인 분위기로 이끄는 것은 선명한 빨간색으로 무장한 카르멘의 이미지다. 카르멘의 농염한 매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작곡가는 이 특별한 여주인공의 성부를 메조소프라노로 설정했고, 소프라노 음색으로는 감히 흉내 내기 어려운 독특한 메조소프라노만의 매력을 극대화시켰다.

그녀가 메조가 아니었다면 특유의 관능미도, 거침없는 팜므파탈로서의 표현도 그처럼 부각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보다 굵은 음색 탓에 오페라 역사에서 주로 여주인공인 소프라노의 어머니나 유모 혹은 하녀 같은 조력자에 머물거나 마녀나 비열한 연적 등 대립되는 역할을 맡아왔던 메조소프라노는 이 작품에서 당당한 자유분방함과 치명적 매력을 가진 여성적이고 독립적인 캐릭터로 거듭나게 되었다.

카르멘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개성과 이국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면 상대역인 돈 호세는 프랑스 오페라 고유의 특징을 살린 배역이다. 그는 카르멘에 대한 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답답하고 우유부단한 존재로 그려지지만 사랑의 아리아 '꽃노래'에서 들려주는 우아함과 서정성은 프랑스 오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준다.

오페라 '카르멘'은 도덕과 관습 따위는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사는 여인의 이야기다. 무더운 이 여름, 한 번쯤 그런 일탈을 감행해 볼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 보시길 바란다.